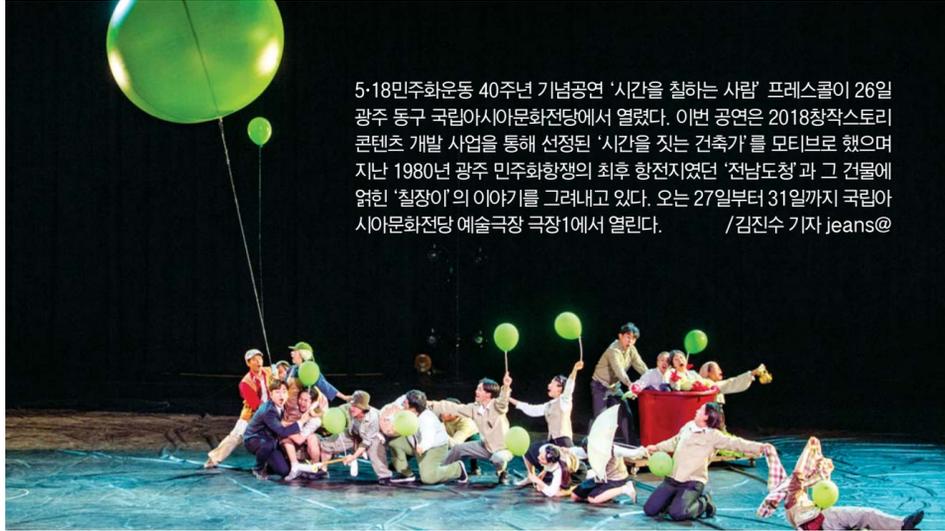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공연 '시간을 찰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공연 '시간을 찰하는 사람' 프레스콜이 2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2018창작스토리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선정된 '시간을 찰하는 건축가'를 모티브로 했으며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항쟁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과 그 건물에 얽힌 '찰장이'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도 '한국판 뉴딜' 사업 적극 발굴

김영록 지사, 정책회의...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TF 운영
청년일자리·비대면 콘텐츠 개발 등 3대 프로젝트 10대 과제

전남도가 '포스트 코로나 19'에 대응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신설,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대면 콘텐츠 개발, 농수축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망 확대, 감염병 대응 전문조직 강화 및 감염병전담병원 확보 등이 대표적인 시책이다. 전남도는 "27일 오후 코로나 19로 인한 도민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한국판 뉴딜'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 '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발굴 등을 위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주재하며, 행정·정무부지사와 실·국·원장 등 공직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일자리, 경제, 관광, 농수산, 보건 등에서 '코로나 19' 이후 전남도의 대응 방안과 함께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는 공공일자리, 청년 구직활동 지원 등 재정 일자리 확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신설,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연계 등이 경제 분야에서는 주력 산업 지속성장 기반구축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 지원,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중심 '한국판 그린 뉴딜' 선도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관광산업 조기 활성화, 비대면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청정 이미지 결합 여행상품 개발, 농수산 분야에서는 생활패턴과 음식문화 변화 대응 '남도장터' 등 비대면 온라인 판매망 확대, 농촌인력 수급안정 대책 추진, 보건 분야에서는 감염병 대응 전문조직 강화 및 감염병전담병원 확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도내 '의과대학 유치' 등을 위한 세부 대책을 검토하게 된다. 전남도는 한국판 그린 뉴딜 사업을 구

체화해 향후 국고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상시 TF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정책회의에서도 코로나 19에 대한 꼼꼼한 대응과 함께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전남도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반영 노력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시대 흐름에 맞춰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사업 등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전남의 핵심사업인 청정전남 불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타 시도보다 앞서 부단한 정책개발"을 지시했다. 방사광가속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그동안 도정에 모든 행정력을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생활속 본연의 업무로 전환됐다"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부터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남도의병역사공원, 스마트 블루시티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를 '들어오는 관광' 도시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상품 개발 업체에 홍보비 지원

광주시는 지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어려운 지역 관광업계를 돕고 '들어오는 관광'으로 업계 체질 개선을 위

한 것이다. 기존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지원하던 20만~80만원의 차량 지원비를 50만~1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5인 이상 기자·항공편 이용 관광객을 유치하

면 1인 교통비 2만~3만원, 숙박했을 경우 1인 1만원과 1인당 식비 약 10%를 지급 금액에 비례해 지원한다. 광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업체에는 최대 50만원씩 업체당 3회 홍보비를 지원하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한 여행업체에는 1인당 5000원~8000원을 지급한다.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신정훈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文 정부 국정개혁 뒷받침
택시 대중교통법 제정 실천
정치풍토 개선·공직법 개정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55) 나주·화순 선거구 당선인은 26일 "21대 국회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당선인은 21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한전공대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한전공대 특별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남도, 한국전력과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가장 한전공대 특별법에는 대학의 법적 지위와 국가재정 지원 근거를 담게 될 것이라고 신 당선인은 소개했다.

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21대 국회 의원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다. 신 당선인은 "이번 총선 결과는 운전저에 대한 지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어서 더욱 과분한 지지로 받아들인다.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과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명령과 국민의 심판에 임정난 책임을 느끼며 '일하는 정치, 중단없는 개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제도화할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택시 대중교통법 제정 및 생활 택시 준공영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줄서는 국회의원으로 전락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을 뒷받침하고 지역발전 절호의 기회를 살려내라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더욱 낮은 자세로, 품질 높은 정

농촌 선거구를 둔 신 당선인은 "농촌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서민들이 활발히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서민들 그리고 노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인 마을 택시와 같은 서민 교통수단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 풍토 개선과 맞물려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의지를 보였다.

신 당선인은 "이번 선거기간 내내 '전과 5범'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며 "고려대 재학 중이던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3년 동안 복역한 사안은 1988년 특별사면 복권됐고, 나주시장 재직시절인 2009년 불거진

배임 등의 사건도 2013년 사면·특별복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선거철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이러한 명예훼손과 비난이 무차별적으로 약속됐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당선인은 "정치를 왜 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세상을 바꾸는 것을 지방에서 한 번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구조적인 틀, 제도의 변화가 없이는 진정 이 세상의 변화는 없다는 것, 특히 정치의 변화 없이는 나라의 희망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자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 당선인은 "농민 운동 경험 이후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라며 "제도권 안에서 농민 문제, 서민 문제,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극단적인 '반대 민주주의', 즉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아니라면 국회는 싸우고 투쟁하고 그리는 과정에서 결과를 이뤄내는 곳"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상대 발목잡기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충실하면 국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당선인은 제5·6대 전남도회의 의원, 민선 3·4기 나주시장을 지냈다. 제19대 국회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에서 7만5586표(78.8%)를 얻어 1만8751표(19.5%)를 득표하는데 그친 민중당 안주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남도 '차세대 약물전달 콘텍트렌즈' 개발 추진

산자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선정 36억 확보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가 도내 대학, 기업과 공동으로 응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모두 3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확보한 센터는 윤경철 전남대 교수, 김호중 조선대 교수, (주)원스, (주)휴온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사람 눈의 수소이온농도에 반응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해주는 '차세대 약물전달 콘텍트렌즈' 개발을 추

진할 계획이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해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 자주 시리고 이물감 같은 자극을 느끼게 된다. 안구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지만 현대인의 과도한 TV 시청과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매년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안구건조증 치료에 주로 사용될 안약은 사용하기 간편하나 약물의 투과율이 낮고 잔류시간이 짧아 계속 후대해야하며

자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계 6조원을 비터 국내 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번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국내·외에서 매년 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바이오센터는 시력 교정의 역할에만 머물던 콘텍트렌즈가 치료용 의료가기로 새롭게 탈바꿈하면 의료가기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전남의 의료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수목장 허가·운영 전문기업

수목장 투자

신규 수목장 투자

2,000만원부터 투자 가능

예상수익

2,000만원 투자로 월 85~105만원 수익 예상
평생 소득 구축, 30명 한정투자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 준비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

친환경 장묘문화(주)

전화 070-5172-3090
H·P 010-8431-5199